

Feliz Natal (펠리스 나타우; 브라질말로 성탄 인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브라질 모지(Mogi das cruzes)에서 문안합니다. 브라질에 와서 벌써 두 번째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이어 남반구에서 맞이하는 뜨거운 여름의 크리스마스는 여전히 낯설기만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예년보다 기온이 낮아 좀더 쿨한(?) 성탄이 될 듯 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의 눈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부럽기는 하지만 춥고 긴 겨울을 생각하면 오히려 뜨거운 여름의 브라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 브라질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브라질 사람은 아마 펠레일 겁니다. 그리고 호나우두, 네이마르 등 브라질의 유명한 축구선수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들을 보고서 브라질 사람들은 대부분 흑인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지젤 변천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모델이 브라질인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브라질은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서로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양한 인종의 구별은 있어도 차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가족이 현재 살고 있는 모지(Mogi das Cruzes)라는 시는 인구가 약 43만명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일본계 브라질인이 약 10만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동양인으로서 저희 가족은 아주 쉽게 이 도시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브라질 전체 인구의 약 1.3 퍼센트 정도인 2백만명의 일본인 후손이 브라질 전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인 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다양한 나라와 인종이 서로 섞여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인종적 친화력은 하나님께서 브라질사람들을 세계 선교에 사용하시기에 좋은 조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메리카권역 선교전략회의(10월 16일~18일)

남미 지역의 선교현황을 돌아보고 선교사와 교감하며 필요한 자원과 향후 선교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아메리카권역 선교전략회의가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열렸습니다. 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 선교국장, 교단 총무, 그리고 임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브라질, 볼리비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페루, 칠레 등 7개국에서 선교사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선교전략회의의 가장 큰 결실은 남미형 개척교회 모델과 남미연합신학교를 통한 선교연합의 긍정적인 모델이 제시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스페

인어와 포르투갈어가 혼용되는 국가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지 교단 구성방식을 다각도로 연구했다는 점도 특이한 사항이었습니다. 남미 선교사님들과의 끈끈한 교제가 덩으로 이어져 참으로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참석자들이 모지교회와 신학교를 방문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간 브라질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 브라질 성결성서신학교 2학기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도 영어와 헬라어를 강의했습니다. 부족한 포어이지만 저는 강의하면서 포어를 배우고 학생들은 저의 부족한 포어를 통해 영어와 헬라어를 배웠습니다.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내년 봄학기에는 영어와 성서 히브리어를 강의합니

다.



→ 바울 선교회에서 선교훈련생들에게 구약개론을 한주간 동안 가르쳤습니다. 훈련생중 영어를 하는 여학생이 있어서 제가 영어로 강의하고 그 학생이 포어로 통역을 하였습니다. 오래간만에 하고 싶은 말을 다하며 사역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훈련생들은 6개월의 훈련을 받은 후 인도네시아, 중국 등 다양한 나라로 파송될 예정입니다. 말씀을 통해 서로 도전받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바이블 프렌즈 훈련을 받았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새소망교회를 담임하시는 유환용 목사님께서 오셔서 한주간 동안 신, 구약 1189장 전체를 암기하는 독특한 방법을 알려주시고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영적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날카롭게 만들고 보다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탁월한 기회였습니다.

→ 한국에서 예수전도단 SBS 팀이 오셔서 한주간 동안 사도행전을 강의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에게 귀납법적 성경연구의 방법론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가졌습니다. 신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 눈이 반짝 반짝해졌습니다.

→ 예빈, 예겸, 예성 세 아들이 각각 고3, 고2, 초4가 됩니다. 브라질의 학교에는 유급제도가 있습니다. 과목 성적이 60점 이하면 한 학년을 다시 다녀야 합니다. 다행히도 세 아들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1. 후원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부족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2. 내년도 성결성서신학교의 신입생 모집과 신학생들의 영성훈련과 학업을 위해
3. 브라질 성결교회의 부흥과 모지 성결교회의 부흥을 위해
4. 가족 모두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5. 가족 모두의 언어의 진보와 문화를 잘 적응하고 브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6. 예빈(고3), 예겸(고2), 예성(초4), 세 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오브리가두).

2017년 12월 23일 모지에서 박지형, 안지은, 예빈, 예겸, 예성 선교사 가정 드림.